품사 통용을 이용한 국어 품사 교육 방안*

최형기
(원광대학교)

Choi, Hyungki. 2011. How to use the currency of word class in Korean grammar educ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3). 293-313. There are nine word class in Korean school grammar. That is noun, pronoun, numeral, adverb, determiner, postpositional particle, verb, adjective, interjection. In Korean school grammar, the criteria which is used in determining word class include considerations on forms, functions and meanings. By the way, a word is used more than two word class, that is currency of the word class. However, currency of the word class helps word class education. My argument begins with review about the school curriculum and the studies precedent. secondary, I discuss the currency of the word class. Lastly, I design a lesson on word class education by the heuristics. In this lesson, I intend and hope to advance the grammatical competence of students.

Key Words: word class, currency of word class, grammar education, heuristics

1. 머리말

인간의 인지능력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능력은 사물을 범주화하는 능력이다. 즉 인간은 있는 대상을 그대로 인지한다기보다는 사물의 속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인지한다. 마찬가지로 머릿속 어휘 사전에서도 단어들은 의미장 속에서 대등어의 무리를 짓는데 이 대등어는 서로 동일한 부류를 이룬다(Aitchson,1987:161).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몇 갈래로 묶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머릿속 사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1] 품사 분류는 그 기준에 따라 최소 다섯에서 열 셋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1) 물론 이것이 머릿속 어휘 사전의 단어 부류와 학교 문법에서의 품사 분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머릿속 어휘 사전에 몇 개의 단어 부류가 존재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Aitchson,1987:157-172). 단어가 문장 내 자립 여부에 따른 동적인 용어임에 비해 품사는 이 단어를 독립적으로 바라본 정적인 용어

까지 분류할 수 있다.[2] 이런 사실은 국어 품사 분류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문법 교육에서는 훌륭한 탐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학교 문법에서 품사 통용으로 다뤄진 대부분의 단어들은 품사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품사로 처리될 수도 다른 품사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 글의 관심은 품사 분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품사 분류 기준을 학습한 학습자들이 '(가) 한 단어가 문장 안에서 갖는 기능 또는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 품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품사 통용), (나) 품사 분류 기준을 달리하였을 때, 품사 통용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수업을 설계하는 데에 있다. 학습자들은 이런 수업을 통해 국어 현상에 대하여 분석, 종합, 평가, 해석하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고, 문법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국어 문법 능력이 향상되고, 학습자들은 국어에 대한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먼저, 품사 교육의 의의를 생각해 보고 난 뒤에 품사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이 과정을 통해 품사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까지 품사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 주로 관심이 있었는지 알게 된다. 다음으로, 품사 통용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준을 달리 했을 때, 품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이 부분은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탐구학습으로 이루어질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품사 교육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품사 교육 내용의 위계, 품사 통용을 이용한 품사 교육 수업 지도안 등으로 구성된다.

2. 품사 교육의 의의와 선행연구 검토

이 장에서는 품사 교육의 의의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사 관련 교육 내용과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2.1. 품사 교육의 의의

문법 교육에서 품사 교육의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개별 품사를 개별 단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관규, 2005:72).

2) 주시경(1910)에서는 9품사가 설정되었으나 '대명사, 수사'를 제외하고 '접속사, 종결사'를 따로 설정하였다. 최현배(1971)에서는 학교문법의 9품사에 '지정사'를 따로 분류하여 10품사를 설정하였고, 정열모(1946)에서는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의 5품사를 설정하였다. 김근수(1947)는 9품사 외에 '존재사, 지정사, 조용사, 접속사'를 인정하여 13개의 품사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현행 학교 문법의 정신에도 알맞는 학습 내용이다.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위치, 다른 단어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단어는 고정된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학교 문법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시하는 탐구학습의 좋은 주제가 된다. 민현식(2002ㄱ:106)은 제7차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을 다음 네 가지로 평가하고 있다. 즉, (가) '문법' 과목의 내용은 종래 지도되어 온 학교 문법의 명제적 지식들은 일부 실용과 규범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도로 전수되도록 하고, 대부분은 국어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활발한 탐구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도록 하였다. (나) 통일 학교 문법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자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고 있다. (다) 종래 학교 문법에서 기술해 놓은 규범적 개념을 단순히 학습하고 암기하는 활동보다는 그 자체를 다양한 국어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전략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라) '문법'의 내용 체계는 기존의 학교 문법의 지식 체계를 단순히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런 7차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의 정신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품사 교육은 교육과정의 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분야이다.

둘째, 올바른 문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품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문장은 문장 성분들의 일정한 배열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문장 성분들은 문장 안에서 서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다. 그런데 문장 성분들은 단어가 문장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법적 행위이고, 문법적 행위는 단어의 품사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문장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품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의미와 품사의 연관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품사를 분류할 때는 '의미'를 보조적 기준으로 이용한다. 그러나 Aitchson (1987:160)에 의하면, 단어 부류의 범주화(즉, 품사)는 자의적이 아니며, 기원에 있어서 의미 범주에서부터 생겨났다. 원형적 명사는 사람과 사물인 경향이 있으며, 원형적 동사는 행동이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머릿속 어휘사전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와 품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품사를 교육하는 것은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교육이 된다.

넷째, 단어형성에 대한 이해와 신어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단어형성에는 품사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품사에 대한 지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품사에 대한 지식은 기존의 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거나 합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파생이나 합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품사에 따른 제약이라든지 또는 동사나 형용사와 명사가 합성될 때의 제약(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2.2. 교육 과정 검토

교육과정에서 품사 교육과 관련하여 설정된 단원은 7학년과 선택교과인 문법에서 각각 한 단원씩이다. 문법 교과는 국어 단원의 내용을 심화하는 과정의 성격을 지닌다. [표 1]은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에서 품사 교육에 대해 기술된 내용이다.

표 1. 품사 교육 관련 교육과정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주안점	연계 과정
7학년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 품사의 개념 이해하기 ● 품사의 분류 기준 발견하기 ● 품사 분류하기 ● 품사의 종류와 특성 설명하기	● 학생들이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탐구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통해 어휘 더 나아가 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3-(1)】 국어 사전에서 낱말 찾는 방법을 안다. 【4-(3)】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한다.
문법	단어의 품사 분류를 이해하고 품사 지식이 국어사전에 활용되는 양상을 탐구한다.	● 단어와 품사의 관계, 단어 분류의 의의 이해하기 ● 품사에 대한 지식을 국어사전에 활용하기	● 형태, 기능, 의미에 따른 품사 분류 ●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이해하고 실제 국어사전을 활용할 때 품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도록 지도.	【7-(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교육과정에서[3] 품사 교육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7학년이 '품사의 개념, 품사 분류 기준과 품사 분류하기, 품사의 종류와 특성'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주로 선언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문법 과목에서는 품사 분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품사 분류의 의의와 품사와 단어의 관계, 국어사전에 활용' 등 절차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품사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고 이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라는 9품사를 학교 문법의 품사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4] 그리고 품사를 분류하는 절차도 '형태→기능→의미'의 순서를 따르고 있

3) 위의 표에서 7학년의 '주안점', 문법의 '내용 요소의 예'와 '주안점'은 해설서의 내용을 항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4) 품사 분류 기준은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인다. 남기심·고영근(1993:58-66)은 '의미(meaning), 기능(function), 형식(form)'을 제시하고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익섭·채완(1999:115-119)은 '형태(form), 기능'에 따라 품사를 분류해야 하고, '의미'는 보조적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오히려 멀리 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견해이다. 고영근·구본관(2008)은 '형식, 기능, 의미'를 제시하고 '의미'는 보

다. 또한 학습 방법으로는 탐구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분류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의 목적은 품사 분류 기준이나 그 절차를 밝히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2.2. 선행 연구 검토

국어 품사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품사 분류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학교 문법에 따라 분류된 품사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품사 분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는 선행 연구는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품사 교육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품사 통용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품사 교육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품사 통용을 통해 국어 품사를 교육한다는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토한다.

먼저, 품사 교육에 대한 논의이다. 이상태(2009)는 "품사 분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단어의 문장 구성상의 위치 확인과 공통 속성 뽑기."라 전제한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대상화가 쉽지 않은데, 이를 드러내기 위한 조작으로 '품사 그림'을 제안하였다. '품사 그림'을 이용하면 국어의 문장 구성에서 어휘 통합상의 특성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다. '품사 그림'은 품사 교육을 품사에만 그치지 않고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의 [7-문법-(3)](p.44)에서도 문장 성분과 품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 둘을 비교하면서 지도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도 더불어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내재화되어 있는 품사에 대한 지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오현아(2010)는 김은성(2007)이 제안한 '이야기를 활용한 문법 교육의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야기를 활용한 품사 단원 내용 구성을 제안한 논의이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의 문법 교육이 교사의 설명 위주의 수업 방식과 암기 위주의 학습 방법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고, 재미없어 하며, 시험을 위해서나 벼락치기로 외우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오현아(2010)에서는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구성된 이야기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단편적인 지식의 제시가 아니라 맥락화된 지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품사 관련 문법 지식을 표상화한 이야기 <우리말 들여다보기(김대행)>, <품사 나라 벼슬 잔치(이삼형)>, <단어 나라 탐방기(새롬)>를 대상으로 품사 관련 문법 지식과 이야기를 결합하고 있다. 이 논의는 기존의 지식 중심, 교사 위주의 탈맥락적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실제 맥락 속에서 문법 교육이 이뤄지게 하

조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 반면, 임홍빈 · 장소원(1995)은 '의미'를 제1 기준으로 제시하여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려는 시도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다음으로, 품사 통용에 관한 논의이다.[5] 남기심・고영근(1993/2009:186-188), 김광해 외(1999/2004), 고영근・구본관(2008:49-52)에서는 학교 문법의 입장에서 품사 통용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기심・고영근(1993/2009)에서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라고 품사의 통용을 정의하고, 통용의 유형으로, '명관류, 명부류, 통용부명류, 명조류, 대부류, 수관류, 조부류, 부조류' 등을 설정하고 있다.

서태룡(2000)은 형식과 의미가 일정하면 하나의 기본 범주로 설정하고, 형태론적 특징이 동일하면 하나의 기본 범주로 설정한다는 기준을 설정하고 국어의 기본 통사 범주로 명사, 동사, 수식사, 어미만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견해는 품사 통용을 허용하지 말자는 견해이다. 서태룡(2006)은 국어사전을 대상으로 품사 통용의 다양한 예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품사 통용은 대부분 품사 분류 기준을 달리하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동일한 단어에 대해 여러 품사를 인정하면 사전의 기술이 복잡해진다는 점, 그리고 문법 교육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들어 품사 통용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도 품사 통용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구본관(2010)은 품사 분류의 기준과 품사 통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품사 통용이 일어난 원인으로 고영근・구본관(2008:49-52)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방향이 특정 문법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언어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는 '의식 고양' 또는 '언어 인식'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 따른다면 품사 통용 현상이 언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어 교육에서 품사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품사 통용 현상이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 국어의 다양한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소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기존의 논의들은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는 국어 품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품사 분류 기준의 문제점, 문법 교육의 방향 제시 쪽에서 이뤄졌다. 또한 품사 통용과 관련해서는 통용을 반대하는 입장과 통용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품사 통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본고와 관련하여 품사 분류 기준을 달리 했을 때 품사 분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구하는 내용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품사 통용의 유형과 분류 기준을 달리 했을 때 어떻게 품사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

5) 품사 통용이란 용어는 홍기문(1927, 1947)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를 남기심・고영근(1993/2009:186-188)에서 도입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구본관, 2010:191).

3. 품사 통용의 유형과 분류 기준

3.1. 품사 통용의 유형

어떤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으뜸이 되는 품사를 정하고 거기에서 다른 품사로 전성되었다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품사 전성으로 처리하면 으뜸되는 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전성의 절차를 형태론적으로 형식화하기가 또한 쉽지 않다(남기심・고영근, 1993:187). 학교 문법과 국어사전에서의 처리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적 기능을 공유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적 성질을 가지는 예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작업은 실제 수업에서 품사 분류 기준을 습득하고 난 뒤에 품사 분류 기준을 달리 적용했을 때, 품사 분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단어와 단어들이 문맥에 따라 다양한 품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6]

(1) 품사 통용의 유형[7]

① 명사 ~ 관형사

a. 그는 이지적인 인간이다.<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관형사>

b. 만, 천만, 접미사 '-적(的), -째'가 붙은 단어.

② 명사 ~ 부사

a. 그의 한 평생이 행복스러웠다.<명사>
그런 이야기는 평생 처음 듣는다.<부사>

b. 서로, 가급적, 모두, 다, 잘못,…

③ 명사 ~ 수사 ~ 관형사

a.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 한다.<명사>
수술 환자를 다룰 때는 첫째, 마취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수사>
우리집 첫째 아들입니다.<관형사>

b. 첫째, 둘째,…

---

6) 아래의 품사 통용 예들은 남기심・고영근(1993:186-189), 서태룡(2000), 최호철(2000),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이라 함.) 등에서 가져왔다.

7) 각 예에서 'a'는 품사 통용이 적용된 예이고, 'b'는 그런 유형에 속하는 단어들의 목록이다.

④ 명사 ~ 감탄사
a. 가족들의 안녕을 빌었다.<명사>
안녕, 오랜만이다. <감탄사>
b. 기준, 바로, 만세, 고수래, 걸음마, 곤지곤지, 도리도리
⑤ 명사 ~ 조사
a.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명사>
너도 형만큼 열심히 해라<조사>
b. 만치
⑥ 대명사 ~ 관형사
a.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대명사>
그 사람은 가고 없지만 <관형사>
b. 이, 저, 아무,…
⑦ 대명사 ~ 부사
a. 거기가 어디에요.<대명사>
나도 거기 갑니다.<부사>
b. 여기, 저기[8], 어디, 언제
⑧ 대명사 ~ 감탄사
a. 저기 안방에 거시기 좀 있어요?<대명사>
저, 거시기, 죄송합니다만, <감탄사>
b. 거, 뭐, 어디,…
⑨ 수사 ~ 관형사
a. 열에 다섯을 더하면 열다섯이다.<수사>
열 사람이 다섯 마디씩 말을 하면<관형사>
b.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
⑩ 부사 ~ 감탄사
a. 올 시간이 넘었는데 왜 안 올까?<부사>
왜, 사고라도 났는가. 어떻게 된 거야.<감탄사>
b. 정말, 글쎄, 어디, 아니, 하하,…
⑪ 부사 ~ 조사
a.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부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조사>

---

8) <표준>에서는 '여기, 저기, 거기'를 대명사로 처리하고 있지만, 남기심 · 고영근(1993:188)에서는 대명사와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저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대명사와 감탄사로 동음이의어로 처리되어 있다.

b. 마저

⑫ 관형사 ~ 감탄사

a. 세상에 그런 빌어먹을 규칙이 어디 있단 말이냐?<관형사>
이런, 빌어먹을!<감탄사>

b. 까짓, 넨장, 염병할, 젠장맞을,…

⑬ 명사~관형사~부사

a. 이 연구는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뤄졌다.<명사>
지역 방언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하였다.<관형사>
그의 방은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깨끗하였다.<부사>[9]

⑭ 형용사 ~ 동사

a. 나는 키가 너무 커서 걱정이다.<형용사>
키는 밤에 큰다<동사>

b. 굳다, 굽다, 둥글다, 늦다, 밝다, 붉다, 있다,…, 의태어+하다

(1)에서 제시한 예들은 <표준>과 남기심・고영근(1993), 서태룡(2006) 등에서 품사 통용 목록으로 제시된 단어들이다. 이 글의 목적이 이런 분류가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데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어 품사 분류 교육을 통해 문법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자료들을 이용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달리했을 때 품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친다.

3.2. 품사 분류 기준과 품사 분류

국어 단어는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체언, 수식언, 관계언, 용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분류는 '동사'와 '형용사'의 통용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품사 통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좀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은 (2)와 같다.

(2) 품사 통합 기준

a. 일관성: 문장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들은 하나의 처리 방식을 유지한다.

b. 의미의 유연성: 원 단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달리하면, 동일 품사로 처리하고, 의미의 변화가 있으면서 기능을 달리하면 동음이의어로 처리한다.

c. 어미와의 통합성: 동사, 형용사는 의미의 유연성 외에 어미와의 통합성을 고려한다.

---

9) 서태룡(2006:372-374)은 '명사, 관형사'로 쓰이는 '비교적'과 '부사'로 쓰이는 '비교적'이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전자는 명사, 후자는 부사로 구별하여 품사의 통용을 인정하고 있다.

(2)의 기준을 적용하여 품사 통용을 인정하는 단어들을 통합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에서 제시한 (1)의 유형을 다시 가져오되, 분류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통용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유형별로 묶어서 제시하기로 한다.

(3) 품사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
  a. ① 명사 ~ 관형사 ⑥ 대명사 ~ 관형사 ⑨ 수사 ~ 관형사
     ③ 명사 ~ 수사 ~ 관형사
  b. ② 명사 ~ 부사 ⑦ 대명사 ~ 부사
  c. ④ 명사 ~ 감탄사 ⑧ 대명사 ~ 감탄사 ⑩ 부사 ~ 감탄사
     ⑫ 관형사 ~ 감탄사
  d. ⑤ 명사 ~ 조사 ⑪ 부사 ~ 조사
  e. ⑬ 명사 ~ 관형사 ~ 부사
  f. ⑭ 형용사 ~ 동사

(3.a)와 (3.b)는 체언이 관형사와 부사로 통용되는 예들이다. 이들은 모두 뒤에 조사가 통합되면 명사로 처리하고 조사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체언 앞에 와서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면 관형사, 용언 앞에 와서 수식의 기능을 수행하면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4.a)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 명사'의 배열에서 앞 명사가 관형격조사가 통합되지 않은 채 관형어의 기능을 수행한다(관형격조사 '의'의 생략). 그러므로 기능상 같은 체언인 대명사나 수사의 경우도 체언 앞에서 관형격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로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품사 통용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4.b)에서도 '학교'가 부사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로 용언 앞에 와도 품사는 명사로 처리하며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된다. 따라서 명사를 처리하듯이 대명사나 수사를 처리하면 품사의 통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10] 즉, (3.a, 3.b)에는 (2.a)의 일관성의 기준을 적용하면, 품사 통용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4) a. 애들이 부모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b. 철수가 학교 간다.

(3.c)는 '명사, 대명사, 부사, 관형사'가 감탄사와 통용되는 경우이다.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면 감탄사로 분류한다. 그런데, 감탄사로 쓰일 때와 다른 품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달라지고, 많은 경우에 입버릇으로 쓰는 말이나 특정 맥락에서 상투어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

10) 다만, '그는 나만 바라본다.'와 '그 사람은 가고 없지만'에서 전자(대명사)와 후자(관형사)의 '그'가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점은 남는다.

하면 품사 통용보다는 (2.b)의 의미의 유연성 기준을 적용하여 동음이의어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④)의 예를 다시 가져온 (5)를 보자.

(5) a. 가족들의 안녕을 빌었다.<명사>
b. 안녕, 오랜만이다. <감탄사>

<표준>에서 '안녕'에 대한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명사] 아무 탈 없이 편안함. [감탄사] 편한 사이에서,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정답게 하는 인사말." 두 뜻풀이의 비교를 통해, 명사로 쓰일 때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나 '감탄사'로 쓰일 때는 그런 어휘적 의미는 없어진다. 즉, (1.⑧, ⑩, ⑫)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조사나 활용어미와 결합하여 관용화된 상투어로 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예들은 기본형태를 밝힐 필요가 없이 그 자체가 감탄사로 굳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탄사의 한 특징이 다른 품사로부터 전성된 것들이 많다는 점(고영근 · 구본관, 2008:136)을 고려하면, 이런 처리는 타당하다고 본다.

(3.d)는 '명사, 부사'가 '조사'와 통용되는 예들이다. 명사와 조사로 통용되는 단어로는 '만큼, 만치'가 있다.[11] 사전에서 이들은 관형사형어미 뒤에서는 (의존)명사, 명사 뒤에서는 조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서태룡(2006,383-386)에서 지적한 것처럼 명사로 쓰일 때와 조사로 쓰일 때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고, 명사 뒤에 조사의 연결이 필수적이 아니다. 따라서 (2.a,b)를 적용하면 '명사' 한 품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의존명사 '망정'의 쓰임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즉, '우리가 한발 앞섰기에 망정이지'에서 '망정'은 관형사형어미가 아닌 '-기에', '-니', '-니까', '-어서'와 같은 어미 뒤에 나타난다. 그리고 '-기에'는 기원적으로 명사형전성어미 '-기'에 조사 '에'가 결합하여 굳어진 형태이다. 또한, 이 문장은 조사가 생략된 '우리가 한발 앞섰기 망정이지'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의존명사가 반드시 관형사형어미 뒤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수도 없다.[12]

부사와 조사로 통용되는 예는 '같이, 마저'가 있다.[13] 여기에서 '부사'와 '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체언과 '같이/마저' 사이에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른다. 여기에도 (2.b) 기준인 의미의 유연성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이'는 부사로 쓰일 때와 조사로 쓰일 때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고, 체언에 조사의 연결이 필수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같이'의 품사는 부사로만 쓰인다고 해도 되겠다. '마저'의 경우는 부사로 쓰일 때와 조사로 쓰일 때 의

11) 남기심 · 고영근(1993:187-188)에서는 '만큼, 대로, 뿐' 세 단어를 명사와 조사로 통합되는 단어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에서는 '만큼/만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12) 물론 이런 경우 주로 '-기에 망정이지/ '의 형태로 굳어져서 사용되기 때문에 '만큼/만치'와는 다른 점이 있다.

13) '보다'도 부사와 조사로 통용되나 <사전>에서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태룡(2006:382)의 처리를 따라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각각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할 수 있다.

(3.e)는 명사, 관형사, 부사로 통용되는 예이다. 여기에는 '비교적, 가급적' 두 단어가 있다.[14] '-적'이 붙은 단어로서 명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것은 앞의 (3.a)의 처리와 같다. 그런데 '비교적'이 부사로 쓰일 때와 '명사, 관형사'로 쓰일 때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2.b) 기준인 의미의 유연성을 적용하여 부사로 쓰이는 '비교적'은 별개의 단어(동음이의어)로 구분할 수 있다.[15]

(3.f)는 '동사'와 '형용사'로 통용되는 예이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은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어미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였으므로 '형식'까지 고려한 분류이다. 즉, 동사에는 명령형어미 '-어라', 청유형어미 '-자', 현재시제선어말어미 '-는/ㄴ-',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러/-려' 등이 통합되지만, 형용사에는 이런 어미들이 통합되지 않는다.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 기능을 공통으로 지니기 때문에, 이 둘을 묶는 상위개념으로 동사(또는 서술사)를 설정하고 필요하면, 하위분류에서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단어 수가 많지는 않으나 동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 의미의 차이가 많지 않아서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에는 (2.c)의 기준을 적용해서 품사를 구분한다.

4. 품사 교육 수업 설계

4.1. 품사 교육 내용의 위계

국어 품사 교육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항목은 다음 12가지 정도이다. ① 품사의 정의 ② 품사 분류 의의 ③ 품사 분류 기준 ④ 품사 분류하기 ⑤ 품사 통용 ⑥ 분류 기준 세워 품사 분류하기 ⑦ 품사의 특성 ⑧ 단어와 품사의 관계 ⑨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 ⑩ 사전 찾기 ⑪ 품사에 대한 지식을 이용한 올바른 표현 ⑫ 국어에 관심을 갖는 태도 등.

이 항목들을 학교 급별로 그리고 지식의 종류와 교수・학습 방법, 민현식(2002ㄴ:80)에서 제안한 문법 지식 위계화 방법에[16] 따라 배열하자면 [표 2]와 같다.

---

14) '비교적'은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이지만 '부사'로 쓰임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가급적'은 명사와 부사로만 쓰이고 관형사로는 쓰이지 않는다(서태룡, 2006:372).

15) 서태룡(2006:374)도 같은 처리를 하고 있다.

16) 민현식(2002:80)은 문법 지식을 위계화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복잡성, 학습성, 교수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즉, 단순하고 학습자가 배우기 쉬운 것 그리고 교수자가 가르치기 쉬운 것부터 내용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 품사 교육 내용의 위계

학교 급별	품사 지식 내용	지식의 종류	교수・학습법
초등학교	①, ⑩	선언적 지식	설명 중심
중학교	②, ③, ④, ⑧, ⑨, ⑫	선언적 지식, 절차적 지식	설명 중심, 탐구학습 부분 적용(③, ⑧ 등)
고등학교	⑤, ⑥, ⑦, ⑪, ⑫	절차적 지식	탐구 중심

[표 2]에서 '품사 지식 내용'은 학교 급별에 따라 단순하고, 쉽고, 설명이 용이한 원리적 지식의 내용들로부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적용, 분석, 종합, 평가하는 논리적 사고로 발전되도록 배열한 것이다. 선언적 지식은 본격적 학습을 위한 기초 지식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토대 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다. 저학년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은 설명 중심의 수업이 효과적이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품사의 개념은 사전을 찾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품사 분류 기준 중 주로 형태의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품사 수업은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사전을 찾는 데에 적용하는 학습이 주가 될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단순한 자료 수집, 공식에 대입하고 응용하기, 반복 학습 등을 통해 기본 지식을 다지고, 부분적으로 실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학습자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즉, 선언적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절차적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라 하겠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교수・학습 방법은 설명 중심 수업이 주가 되고 내용에 따라 보조적으로 탐구학습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과정은 초・중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 사고가 주가 되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때는 규칙의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며, 정보를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학습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에는 탐구중심 교수・학습법이 유용하다.

4.2. 품사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사 통용은 분류 기준을 달리하면 품사가 달리 설정될 수 있다. 이 내용은 품사 분류에 대한 학습을 한 뒤에 품사의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내용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교사가 제시할 수도 있다.

먼저, 본고에서 적용할 문법 수업 모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다. 문법 교육에서 강조되

는 수업 유형이 탐구학습이다. 탐구학습은 어떤 의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해답을 찾아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한 학습 방법이다(김광해,1997:112). 즉,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 종합, 평가함으로써 이해와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또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비판적 사고 등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다.[17] 그러나 탐구학습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식이나 기능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센터).

탐구학습법은 일부 문법 요소(상, 양태 등)를 제외하고는 문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는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특별히 가치 있는 몇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기본 지식이나 개념을 지도할 때, 저학년의 경우는 귀납적인 탐구학습법보다는 연역적인 설명 중심의 교수・학습 유형이 더 효과적이다.

4.3. 수업 지도안

품사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수・학습 유형으로는 탐구학습법이 유용하다. 여기에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 사회구성주의의 지식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여 토의 학습을 도입하기로 한다. 그리고 수업의 효과 면에서도 학생들은 또래와의 교류에 의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점을 고려했다.

품사 통용을 이용한 품사 교육은 품사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인 수업 전개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 고등학교 1학년

나. 학습 목표: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다. 선수 학습 진단: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품사 분류 기준에 따른 품사 분류 방법. 형식, 기능, 의미에 의한 품사 분류 절차 진단. 동음이의어, 다의어의 개념과 사전에서의 처리 방식에 대한 점검. 학습자들이 이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선수 학습이 부족할 경우 설명 중심의 수업으로 보충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단계에 따라 분류한 품사를 보이면 [표 3]과 같다.

---

17) 2009 교육과정 해설서(p.180)에서 제시하는 탐구학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어진 자료에 대한 논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해당 논제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셋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적절한 국어 자료를 수집한다. 넷째, 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 과정에 따라 규칙이나 원리를 도출한다. 다섯째, 도출된 규칙이나 원리의 적절성을 확인하거나 반례를 든다. 이 중 다섯째는 실제 수업에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 3. 품사 분류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09)

분류 기준	형식 (form)	기능 (function)	의미 (meaning)
단어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가변어		(서술격조사)
		용언	동사
			형용사

[표 3]의 절차에 따른 품사 분류를 보이면 (5)와 같다.

(5) 품사 분류 절차

a. 철수가 책을 잘 읽는구나.

ㄱ. 형식→ 철수, 가, 책, 을, 잘<불변어>// 읽-는구나<가변어>

ㄴ. 기능→ 철수, 책<체언> 잘<수식언> 가, 을<관계언>
읽는구나<용언>

ㄷ. 의미→ 철수, 책<명사>, 잘<부사>, 가, 을<조사>, 읽는구나<동사>

b. 아, 저 꽃이 여름에 피면, 얼마나 예쁠까?

ㄱ. 형식→ 아, 저, 꽃, 이, 여름, 에, 얼마나<불변어>//
피면, 예쁠까<가변어>

ㄴ. 기능→ 아<독립언> 꽃, 여름<체언> 저, 얼마나<수식언>
이, 에<관계언>// 피면, 예쁠까<용언>

ㄷ. 의미→ 아<감탄사>, 꽃, 여름<명사>, 저<관형사>, 얼마나<부사>,
이, 에<조사>, 피면<동사>, 예쁠까<형용사>

c. 셋에 이것을 더하면 일곱입니다.

ㄱ. 형식→ 셋, 에, 이것, 을, 일곱<불변어>// 더하면, 입니다<가변어>

ㄴ. 기능→ 셋, 이것, 일곱<체언>, 에, 을<관계언>// 더하면<용언>
입니다<관계언>

ㄷ. 의미→ 셋, 일곱<수사>, 이것<대명사>, 에, 을<조사>
더하면<동사>, 입니다<조사>

라. 학습 자료 선정: 학습 자료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제적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각종 매체의 담화/글 중 기준을 달리 했을 때, 여러 품사가 도출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마. 학습 활동: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제시하는 탐구 과정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되, 소집단 토의 활동을 강조한다.

바. 수업 지도안[18]

<table>
<tr><td colspan="2">학년</td><td>고 1</td><td>교과</td><td>문법</td><td>대단원명</td><td>품사 분류</td><td>차시</td><td></td><td>쪽수</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소단원명</td><td>품사 분류 기준과 품사 분류</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수업 목표</td><td colspan="9">♣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td></tr>
<tr><td colspan="2">수업 방법</td><td colspan="9">탐구 학습법, 토론 학습법</td></tr>
<tr><td>학습 단계</td><td>학습 요항</td><td>형태</td><td colspan="6">교수·학습 활동</td><td>시간</td><td>자료 및 유의점</td></tr>
<tr><td>문제 확인</td><td>예문 살피기

학습 목표 확인</td><td>전체 학습</td><td colspan="6">▣ 여러 가지 예문 살펴보기
▷ 한 형태의 단어가 여러 기능을 보이는 몇 개의 예문을 제시하고 살펴보게 한다.
• 예문: ① 그는 이지적인 인간이다./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② 사람 마음이 어찌 그러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지요.
• 두 예문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는 무엇일까요?
• ①에서의 밑줄 친 두 단어의 품사는 다르고, ②에서는 밑줄 친 두 단어의 품사가 같습니다.
•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품사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말해 봅시다.
▣ 학습 목표 확인하기</td><td>5분</td><td>※ 정답을 찾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고 품사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문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td></tr>
</table>

18) 도입 단계에서는 흥미 유발, 선행 학습 점검이, 정리 단계에서는 형성 평가 등이 생략되어 있다.

			▷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를 달리 분류할 수 있다.		
문제 탐구	예문을 통해 문제 탐색하기	전체 학습	▣ 예문을 통해 품사 분류 기준을 달리 했을 때 품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 예문을 통해 명사와 관형사의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한다. • 다음에 제시된 예문을 살펴봅시다. (예문) ① a. 그는 이지적인 인간이다./ b.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② a. 사람 마음이 어찌 그러겠습니까?/ b.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지요 - 서형: 예문 ①에서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그렇지 않고 명사 앞에 오면 관형사입니다. - 주연: 그런데 예문 ②에서는 조사가 붙든 붙지 않든 모두 명사라고 합니다. • 예문 ②에서 알 수 있는 명사의 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 명진: 명사는 조사의 도움이 없이도 다른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예문 ①에 예문 ②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예문 ①a의 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 현성: 명사입니다. •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5분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방법 탐색하기	모둠 학습	▣ 문제해결 방법 탐색하기 ▷ 문제 해결 방법을 모둠원끼리 토의하게 한다. - 여러 예문을 찾아 품사 분류 기준을 달리 적용했을 때 하나의 품사로 묶일 수 있는 예들을 찾아본다. • 국어사전에서 품사 통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어들을 찾고 해당되는 예문을 찾아본다. • 인터넷 댓글, 신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 표현, 서적 등에서 예문을 찾아본다. ▷ 여러 분류 기준 중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을 정해 학습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한다.	10분	※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고 최대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3장에서 논의했던 품사 통용의 여러 예를 자료로 제공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적용해 본다.		수 있다.
	자료 모으기	모둠 활동	▣ 필요한 자료 모으기 ▷ 인터넷, 책, 사전의 예문 등을 이용해 같은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는 예를 찾아본다. • 품사 통용의 예 찾기 a. 체언이 관형사와 통용되는 예 b. 체언이 부사와 통용되는 예 c. 체언, 수식언이 감탄사와 통용되는 예를 찾는다. d. 형용사와 동사가 통용되는 예문를 찾는다. • 체언과 관형사 분류 기준은? • 체언과 부사의 분류 기준은? • 체언, 수식언과 감탄사의 분류 기준은? • 형용사와 동사의 분류 기준은?	5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조사한 예문 분석 하기	전체 활동	▣ 모둠에서 조사한 여러 예문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품사 분류 기준을 정해 본다. ▷ 체언과 관형사, 체언과 부사의 분류 기준을 발표한다. • 체언과 관형사의 기능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모둠1에서 발표해 봅시다. - 체언과 관형사 모두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다. -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고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 체언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도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다. • 체언과 부사의 기능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모둠2에서 발표합시다. - <생략> ▷ 체언, 수식언이 감탄사로 쓰일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발표하게 한다. • 체언, 수식언이 감탄사로 쓰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둠3에서 발표해 봅시다. - 의미의 변화가 있습니다.	10분	※ 각 모둠별로 해결할 과제를 하나씩 선택하여 토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 모둠별 토의에서 모둠원이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특정한 맥락 안에서 쓰입니다. - 관용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고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 형용사와 동사로 통용되는 예들을 찾아보고,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하면 이들을 두 품사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모둠4에서 발표해 봅시다. • <생략>		
	규칙성 발견하기	전체 활동	▣ 결론 도출하기 ▷ 9품사로 나누었을 때는 어떤 품사 분류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말하게 한다. • <생략> ▷ 기능이라는 품사 분류 기준을 적용할 때, 국어 품사는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 말하게 한다. ▷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을 하나의 품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했나요? • <생략> ▷ 구체적으로 적용한 기준을 정리해 봅시다. • <생략>	5분	※ 품사와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적용	언어 상황에 적용하기	개별 활동	▣ 적용하기 ▷ 인터넷 댓글을 자료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품사를 분류하도록 한다.	5분	

5. 맺음말

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130). 문법 능력이란 국어 자체에 내재한 원리와 규칙을 탐구 과정을 통해 밝혀 이해하고, 이 원리와 규칙을 국어 생활에 적용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어 문법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국어 자체에 내재한 원리와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것을 바탕

으로 교실을 떠나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국어 문법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법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국어 현상을 파악하며, 정확하고 바른 언어활동을 하는 데에 중요한 바탕이 되는 학습 중 하나가 품사 분류 교육이다.

본고의 목적은 품사 통용을 이용한 품사 교육 방안을 생각해 보는 데에 있었다. 품사 통용을 이용하여 품사 교육을 하는 목적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 상황을 자기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국어 문법 능력을 기르고자 함이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론을 통한 탐구학습 모형이 도입되었다.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은 국어 품사 교육의 초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품사 분류에 대한 지식을 이미 습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탐구학습법에 어느 정도 익숙한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국어, 도덕, 사회)*.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9-41호.

교육인적자원부. (2002). *고등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구본관. (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181-199.

김광해, 권재일, 임지룡, 김무림, 임칠성. (1999). *국어지식탐구*. 박이정.

남기심, 고영근. (2009).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26쇄)*. 탑출판사.

민현식. (2002ㄱ). *7차 교육과정의 개정 '고교 문법' 교과서에 나타난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상관 요소*. 2002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봄 전국학술대회. 97-119.

민현식. (2002ㄴ).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 67-125.

서태룡. (2000). 국어 형태론에 기초한 통사론을 위하여. *국어학 35*, 251-285.

서태룡. (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국어학논총*(pp. 359-389). 태학사.

오현아. (2010). 이야기를 활용한 품사 단원 내용 구성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33*, 145-181.

이관규. (2005).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집문당.

이상태. (2009). 품사 개념의 지도를 위한 한 방식 - '품사 그림' 만들기-. *국어교육연구 44*,

87-102.
이익섭, 채완. (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임지룡, 임칠성, 심영택, 이문규, 권재일. (2010). *문법 교육론*. 역락.
정열모. (1946). *신편 고등 국어문법*. 한글문화사.
주시경. (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최웅환. (2009). 품사 분류에 대한 검토-학교 문법의 품사를 대상으로-, *문학과 언어 31*, 55-78
최현배. (1971). *우리말본(네 번째 고침판)*. 정음사.
최형기, 조창규. (2011). *국어문법교육 강의*. 정음.
최호철. (2000). 국어의 형태론과 어휘론. *국어학 35*, 313-36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센터(n.d.).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http://www.kice.re.kr
Aitchison(1987).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임지룡, 윤희수(옮긴이). (1993). *심리 언어학:머리속 어휘사전의 신비를 찾아서*. 경북대 출판부.]

최형기
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 (063) 850-6532
이메일: hyungki@dreamwiz.com

Received on 14 July, 201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30 August, 2011
Accepted on 30 August, 2011